

한-일,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공조 시동

- 부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 한-일 국장급 에너지대화 개최('24.9.5)
- 청정에너지 협력,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계획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9월 5일(목) 최연우 에너지정책관과 신이치 키하라(木原 晋一, Shinichi KHIHARA) 일본 경제산업성 국제탄소중립정책 총괄조정관이 공동으로 「한·일 에너지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86년부터 한-일 에너지대화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개최되는 부산에서 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공급·소비 구조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높은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시장 및 에너지공급망 위기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수소, 암모니아,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무탄소에너지(CFE)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글로벌 작업반'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양국이 각기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앞서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중립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 (韓) CFE 이니셔티브(CFEI) ↔ (日)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청정전력 이니셔티브(ICEI)

구체적으로 양측은 올해 10월 3일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청정에너지장관 회의」 계기에 발족 예정인 글로벌 작업반을 공동 운영(Co-lead)함을 재확인 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韓) CFE 이니셔티브와 일(日) 청정전력 이니셔티브*(ICEI) 간 상호 협력에 기반하여 전력부문 (scope2)의 무탄소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회원국의 이니셔티브 참여 독려, ▲청정전력 조달 관련 기업 대상 가이드북 제작, ▲세미나 공동 개최 등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 일본 주도로 신설된, IPEF 역내 민간기업의 청정전력 활용촉진을 추구하는 협의체

양국은 세계 각국이 모두 상이한 에너지 여건과 산업여건을 갖고있는 만큼,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현실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유재영 (044-203-5125)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임은성 (043-203-4248)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서기관	박근형 (044-203-489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